

## 經驗醫案 『愚岑雜著』의 肝鬱 治驗例

<sup>1</sup>박상영, <sup>1</sup>오준호, <sup>1</sup>권오민, <sup>1</sup>안상영 <sup>2</sup>안상우

<sup>1</sup>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그룹, <sup>2</sup>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사업단

### Analysis of Examples of Treating Ganwul[stagnation of liver qi] in 『WooJam JabJeo(愚岑雜著)』

<sup>1</sup>Sang-Young Park, <sup>1</sup>Jun-Ho Oh, <sup>1</sup>Oh-Min Kwon, <sup>1</sup>Sang-Young Ahn, <sup>2</sup>Sang-Woo Ahn

<sup>1</sup>Medical History & Literature Research Group

<sup>2</sup>Global DongUiBoGam Center,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In recent times, a medical book called 『WooJam JabJeo』 has been published in complete Korean version. Not a few cases where the vivid appearance of the place for medical treatment are included intact in this medical book. This study is attempting to analyze one symptom of a disease by choosing it among the diseases our ancient sages treated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there are only a few models which are applied to today's clinical treatment by our ancient sages appearance of medical service. This study believes that such an analysis of ancient medicine could be a part of the efforts to increase the applicable models to today's clinical treatment one by one. This paper is aimed at introducing and analyzing the three cases of Ganwul which are found in 『WooJam JabJeo』. It's because this study thinks that Ganwul is a symptom over which oriental medicine can not only establish dominance over western medicine it its diagnosis and prescription but Ganwul will also have high applicability to today's clinical treatment. Through this research, this study was able to perceive that the author, Jang, Tae-kyeong of 『WooJam JabJeo』 had vast knowledge of medical theories, especially in author's understanding diseases and composing prescription based on 『Donguibogam』. Up to the present time, domestic medical circles have understood the emergence of 『Jejungshinpyeon(濟衆新編 1799)』 or 『Bangyakhappyeon(方藥合編 1885)』 as an outlining work at most for overcoming such a limit of 『DonguiBogam』 superficially. However, by looking into Jang Tae-kyeong's understanding of 『Dongui Bogam』 this study was able to know the fact that the emergence of such medical books was possible because the medical knowledge included in 『Dongui Bogam』 was fully understood and digested in society of the Joseon Dynasty. Conclusively, such a fact reminds us that it serves as a momentum to confirm once more that 『Dongui Bogam』 could be a good model for even today's clinical treatment.

Key words : 『WooJam JabJeo(愚岑雜著)』, Ganwul, Clinical Service, Oriental Medicine, 『Dongui Bogam(東醫寶鑑)』

## I. 서론

한의학에서는 증상이 비슷하지만 처방을 달리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유사한 증상이라 할지라도 男女老少에 따라 그 처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微細한 차이점에 대한 인식을 통한 적절한 처방으로 위독한 환자를 죽음 직전에서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했던 반면, 아주 미묘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誤治로 인해 병세가 오히려 악화되거나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

하기도 하였다. 근래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적지 않은 정보를 담은 『愚岑雜著』라는 서적이 번역·출간되었다.<sup>1)2)</sup> 이 책 속에는 저자 愚岑 張泰慶(1809-1887)이 진료현장에서 직접 치료했던 일화들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醫案이 정리되어 있다. 이 책에는 다소 상세하게 진료과정을 적시하고 있어 오늘날 임상에서의 적용 가능성이 몹시 큰 醫案들도

1) 張泰慶 著, 안상우·황재운 譯, 『국역 우잠잡저』, 한국한의학연구원, 2010.

2)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홍세영·안상우, 「愚岑雜著 에 관한 一考」, 호남문화연구(46), 2009, pp.296-304.

박상영·권오민·이정화·오준호, 「『愚岑雜著』所在 狂證 二案에 關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4(6), 2011, pp.101-110.

박상영·이정화·권오민·한장현·안상우, 「愚岑 張泰慶 生涯 研究」, 한국의사학회지 24(1), 2011, pp.57-62.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본고를 통해 『愚岑雜著』에 보이는 여러 醫案 가운데 肝鬱에 대한 진단 및 처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肝鬱은 한의학에서 진단 및 처방이 특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장점을 지녔을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병증임을 감안할 때 임상에서의 활용도가 클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II. 본론

### 1. 처녀의 간울병

첫 번째 간울로 진단된 처녀는 우잠이 길을 가다가 목계 된 주막집 딸이다. 우잠의 설명을 토대로 이 환자의 간울병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sup>3)</sup>

우잠은 길을 가다가 들른 주막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앓는 소리를 듣게 되고, 주모의 딸이 심한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어떤 증상의 병을 앓았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진맥을 통해 하복부와 생식기에 목직하게 짓누르는 감각이 있음을 알아내고, 이것이 성욕이 해소되지 못해 생겨난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것은 부인의 尺脈이 浮動한 것이 하복부 혹은 생식기 등 下焦의 통증이나 陰脫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up>4)</sup> 또 肝에 해당하는 左關脈이 數數한 것 역시 肝氣의 鬱滯를 의미하는 전형적인 맥상이다.

心和脾가 손상되었다는 설명은 이성에 대한 근심걱정으로 속앓이를 했음을 암시하며, 肝鬱로 脾氣가 虛해 내려앉았다는 설명은 환자가 생식기 주위의 濕熱 증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환자가 아랫배와 생식기에 목직한 느낌을 느꼈고 濕熱證을 동반했다는 사실로 보아 帶下의 증상이 매우 심하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우잠이 처음 준 龍膽瀉肝湯은 바로 길으로 드러난 帶下 등의 濕熱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이후 투여한 소요산 가감법은 血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자는 標治이고 후자는 本治인 셈이다.

먼저 우잠은 龍膽瀉肝湯에 靑皮를 가하였다. 靑皮는 足少陽膽經과 足厥陰肝經으로 引經시키는 약재이며<sup>5)</sup>, 동시에 下焦의 氣滯를 풀어주는 약재이다.<sup>6)</sup> 환자의 발병 원인이 肝鬱이며, 증상이 하복부와 생식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잠은 靑피를 추가한 것이다. 또 逍遙散에 黃芩 黃連 梔子를

더한 것은 黃連解毒湯의 의미로 血分의 熱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우잠은 전자를 “간담(肝膽)의 기운을 소통”시키는 것이라고 하였고, 후자를 “혈을 식힘으로써 혈을 길러 음을 북돋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가감법들은 우잠이 『東醫寶鑑』 곳곳에 나오는 가감법 양식들을 폭넓게 이해하고 있음을 방증해 준다.

한편, 본 치험례에는 침구처방이 등장하는데, 짧은 치법이지만 의학적 가치로 매우 가치가 크다. 우선 우잠은 최초로 神門과 行間을 瀉하는 침법을 사용하였다. 神門은 心(火)의 原穴이자 輸穴로서 土穴이며, 行間은 肝(木)의 榮穴로서 火에 해당한다. 이 두 경혈을 瀉한 것은 ‘虛한 경우에는 그 母를 補하고, 實한 경우에는 그 子를 瀉한다.’<sup>8)</sup>는 『難經』의 이론에 따라 각각 心和 肝을 瀉한 것이다. 이는 비록 자신을 克하는 五行인 官을 사용했던 舍岩鍼法의 이론까지 나타나지는 않지만, 五俞穴의 五行 속성을 통해 五臟을 직접 치료할 수 있다는 매우 발전된 의학사상이 반영되어 있다.

또 뒤이어 사용된 列缺와 照海는 모두 奇經八脈을 대표하는 八脈交會穴이다. 列缺은 任脈<sup>9)</sup>을, 照海<sup>10)</sup>는 陰蹻脈을 대표하며, 이 두 혈은 함께 조합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

3) 張泰慶, 앞의 책, pp.1-5. 본고에서는 분량상의 이유로 『愚岑雜著』 본문의 내용을 신지 않고, 대신 주요 내용을 <Table 1-3>으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아래 치험례도 이와 같이 처리하였다.

4) 『東醫寶鑑』 「外形 前陰 脈法」 “부인의 경우 (중략) 소음맥이 부(浮)·동(動)할 경우 부는 허한 것이고, 동은 통증이 있는 것이다. 부인이면 음탈이 된다. 『맥경』 婦人(中略) 少陰脈浮而動, 浮則爲虛, 動則爲痛, 婦人則陰脫下. 『脈經』”

5) 『東醫寶鑑』 「湯液 諸經引導」 “수소양경은 시호이고, 족소양경은 청피이다. 수궤음경은 시호이고, 족궤음경은 청피이다. 少陽經, 手柴胡, 足靑皮, 厥陰經, 手柴胡, 足靑皮.”

6) 『東醫寶鑑』 「內景 氣」 用藥法 “하초 기체에는 청피·목향·빈랑을 넣는다. 下焦氣滯, 加靑皮, 木香, 檳榔.”

7) 이와 유사한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東醫寶鑑』 「雜病 火」 辨陽虛陰虛二證 “혈이 허하여 열이 날 때는 음을 자양하여 열을 내려야 하니 사물탕에 황금·황련·치자를 넣거나 자음강화탕·감리환을 쓴다. 血虛熱, 滋陰以降之, 四物湯, 加靑連, 梔子, 或滋陰降火湯, 坎離丸.”

8) 『難經』 「六十九難」 “경에서, 虛한 것은 補하고 實한 것은 瀉하며, 實하지도 않고 虛하지도 않은 것은 經을 취한다고 한 것은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 虛한 경우에는 그 母를 補하고, 實한 경우에는 그 子를 瀉합니다. 먼저 補한 이후에 瀉해야만 합니다. 實하지도 않고 虛하지도 않은 것은 經을 취한다고 한 것은 正經이 스스로 병들 것으로 다른 사기에 적중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 經을 취해야만 하기 때문에 ‘경을 취하라.’고 한 것입니다. 經言虛者補之, 實者瀉之, 不實不虛, 以經取之, 何謂也? 然,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 當先補之, 然後瀉之. 不實不虛, 以經取之者, 是正經自病, 不中他邪也, 當自取其經, 故言以經取之.”

9) 任脈은 부인과 질환에서 매우 중요한 경맥이다. 『東醫寶鑑』 「外形 前陰」 前陰諸疾 “임맥의 병은 남자의 경우 안으로 뭉쳐 칠산이 되고, 여자의 경우 대하와 징가적취가 된다. 任脈爲病, 男子內結七疝, 女子帶下癢聚.”

10) 부인과 질환에 照海를 사용하는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東醫寶鑑』 「雜病 婦人」 鍼灸法 “산후에 음기(陰器)가 밀므로 빠진 데는 배꼽 아래 횡문(橫門)에 뜬을 14장 뜬다. 조해를 쓰기도 한다. 產後陰下脫, 灸臍下橫紋二七壯, 又取照海. 『良方』”

다. 우잠은 먼저 五俞穴을 사용하여 臟腑의 기운을 제어하고, 이어 八脈交會穴의 조합으로 하복부의 증상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경혈들이 모두 특수한 성질을 가진 특정혈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극단적으로 특정혈의 조합을 강조했던 사암침법이나 『장진요편』의 특징을 떠올리게 한다.<sup>11)</sup>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잠은 운기침법에 조예가 깊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sup>12)</sup> 『우잠잡저』를 보면 「火水未濟鍼法」<sup>13)</sup>, 「우잠의 영구팔법」<sup>14)</sup> 등에서 자신이 개발한 운기침법을 설명하기까지 하였다. 운기침법은 오수혈을 사용하는 子午流注鍼法과 八脈交會穴을 이용하는 靈龜八法이 대표적인데, 「火水未濟鍼法」과 「우잠의 영구팔법」은 각각 자오유주침법과 영구팔법을 우잠 나름대로 개량한 방법이다. 따라서 이 환자에게 오수혈과 팔맥교회혈을 함께 사용한 것은 충분히 납득된다. 하지만 본 치험례의 방법은 운기침법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경혈을 조합한 것이다. 이는 사암침법이나 『藏珍要編』의 침법이 운기침법의 주요 경혈인 오수혈과 팔맥교회혈을 이용하면서, 운기침법의 핵심인 시간에 따른 선혈방법을 폐기하고 증상에 따라 경혈을 조합하는 방식을 정립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정황들은 우리나라에서 특정혈을 이용하여 자생적으로 형성된 침구법들이 운기침법에 대한 비판 혹은 대안 마련을 동기로 하여 탄생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1. 주막 처녀의 간울병 치험례 요약**

인적사항		■ 시집갈 나이의 젊은 처녀
환자의 호소	발병원인	미상
	주요증상	미상
우잠의 평가	맥상	■ 양쪽 척맥이 모두 부동(浮動) ■ 좌관맥이 유독 현삭(弦數)
	외증	■ 아랫배와 생식기에 목직하게 짓누르는 증상
	병인, 병기	■ 남자를 그리워하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심(心)과 비(脾)가 손상되고 그로인해 간울로 비가 허하게 되어 내려앉은 것
	평가	■ ‘음허화동(陰虛火動)’으로 난치(難治)
	치법	■ 간담(肝膽)의 기운을 소통 ■ 혈을 식힘으로써 혈을 길러 음을 북돋게 함
치방	침구	① 신문(神門)과 행간(行間)을 사(瀉) ② 조해(照海)를 보(補) ③ 열결(列缺)을 취혈(取穴)
	처방	① 용담사간탕 加 청피 7푼 (5침) ② 소요산 加 황금 황련 산치자
경과		■ 10여일 복약 후 완치

**2. 젊은 부인의 백음15)**

우잠은 주막 딸과 유사한 원인으로 白淫을 앓았던 27세 젊은 부인의 치험례를 기록해 놓았다. 이 환자는 맥상과 증상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주모의 딸과 유사한 원인으로 유사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이다. 그의 기록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우잠은 ‘아랫배가 아플 때에 음문이 목직하게 짓눌리면서 빠지는 듯’하고, ‘회고 미끄러운 백음에서 악취가 나는’ 증상을 통해 이것이 부부의 성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용담사간탕에 청피 이외에 치자를 더하여 복통과 백음을 치료하여 효과를 보았다. 주모의 딸을 치료했던 치험례와 견주어 본다면 용담사간탕에 청피를 가하는 방법은 우잠이 애용하던 방식으로 보인다. 덧붙여진 치자는 血分의 熱로 인해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婦女에게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는 주모 딸의 예에서 보았듯이 ‘성관계를 너무 지나치게 하였거나, 성관계를 맺고 싶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생긴다. 『東醫寶鑑』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잠도 같은 설명을 기록해 놓았다.

『내경』에, “생각은 끝이 없는데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여 음란한 생각을 지나치게 하거나, 성생활을 너무 심하게 하여 종근이 늘어지면 근위가 되고 백음이 된다”고 하였다. 신장의 정은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마음이 잘 다스려지면 정이 보존되어 새지 않는다. 만약 생각이 밖으로 지나치거나 성생활을 너무 심하게 하면 든든히 지킬 수 없어 저도 모르게 소변을 따라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근위의 원인은 종근이 늘어진 것이다. 『검보』<sup>16)</sup>

11) 『장진요편』에 관해서는 다음 연구에 자세히 다룬다. 오준호, 「19세기 조선 침구서 장진요편의 침법 연구」, 경락경혈학회지 27(1), 2010. pp.159-168.

12) 홍세영·안상우, 앞의 논문. pp.296-304.

13) 張泰慶, 앞의 책. pp.20-22.

14) 張泰慶, 앞의 책. p.142.

15) 張泰慶, 앞의 책. pp.8-9.

16) 『東醫寶鑑』 「內景 精」 精滑脫屬虛 “『내경』에, “생각은 끝이 없는데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여 음란한 생각을 지나치게 하거나, 성생활을 너무 심하게 하여 종근이 늘어지면 근위가 되고 백음이 된다”고 하였다. 신장의 정은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마음이 잘 다스려지면 정이 보존되어 새지 않는다. 만약 생각이 밖으로 지나치거나 성생활을 너무 심하게 하면 든든히 지킬 수 없어 저도 모르게 소변을 따라 나오게 된다. 그러므로 근위의 원인은 종근이 늘어진 것이다. 『검보』 內經曰, 思想無窮, 所願不得, 意淫於外, 入房太甚, 宗筋弛縱, 發爲筋痿, 及爲白淫. 夫腎藏天一, 以慳爲事, 志

표 2. 27세 젊은 부인의 백음 치험례 요약

인적사항		■ 27세 된 젊은 색시
환자의 호소	발병원인	미상
	주요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음에 소변이 찢끔찢끔거리다 아랫배에서 허리와 옆구리까지 이어져 통증</li> <li>■ 하부에서 희고 미끄러운 것이 그치지 않고 흘러나옴</li> <li>■ 하복통이 해질녘에서 밤까지 심하고, 오후에는 경감</li> </ul>
	선행치료	■ 내중(內腫)이 속에서 터져 통순산(通順散) 50첩 복용하였으나 차도 없음
의사의 평가	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맥이 부홍(浮洪)</li> <li>■ 왼쪽 촌맥과 관맥이 현삭(弦數)</li> </ul>
	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랫배가 아플 때에 음문이 목직하게 짓눌리면서 빠지는 듯함</li> <li>■ 희고 미끄러운 것에 악취가 있음</li> </ul>
	병인, 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관계를 너무 지나치게 하였거나, 부부관계를 맺고 싶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함</li> <li>■ 간열(肝熱)로 간울이 생겨 비가 허하게 되어 내려앉음</li> </ul>
	평가	■ 백음(白淫)
	처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복통 백음</li> <li>① 용담사간탕 加 치자 청피 4제</li> <li>가 (瘕)</li> <li>② 중극(中極)·곡골(曲骨)에 자침 후 뜸 21장</li> <li>③ 삼출도인전(參朮桃仁煎)</li> </ul>
경과		■ 호전
재발	처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여일 후 회복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로 음탈(陰脫) 발생</li> <li>■ 보중익기탕 加 치자 청피 : 간화(肝火)를 식힘</li> <li>복령 차진자 : 소변으로 사열(邪熱) 배출</li> <li>■ 용담사간탕 : 간울(肝鬱)을 사(瀉)함</li> <li>■ 환처에 여로고(藜蘆膏) 도포</li> </ul>
	음정(陰挺)	■ 7~8일 후 완치
경과		

이 환자는 병증을 오래 앓은 탓에 백음이 치료된 이후에도 積聚의 일종인 瘕가 생겨 아랫배에 딱딱하게 주먹만한 것이 남아 있었다. 瘕는 腫塊로서 단단하지만 움직이는 것이다. 婦女의 하복부에 발생하면 월경과 임신에 악영향<sup>17)</sup>을 미치기 때문에 잘 치료해 두어야 한다. 이에 中極과 曲骨에 뜸을 뜨고, 參朮桃仁煎을 복용시켰다. 중극과 곡골은 하복부 가장 아래에 있는 경혈들이다. “징가적괴에는 먼저 덩어리 위에 침을 놓는데, 덩어리가 클 때는 덩어리의 머리에 하나, 꼬리에 하나 침을 놓는다. 덩어리가 침에 반응하면 바로 뜸을 뜬다.”<sup>18)</sup>라는 『東醫寶鑑』의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아마도 환자의 瘕는 곡골과 중극을 양 끝단으로 하는 직경 약 1촌 정도였을 것이다.

삼출도인전은 우잠이 창방한 처방들로, 그의 치험례에 보

이는 처방들이 대부분 『東醫寶鑑』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볼 때 이례적인 것이다. 『東醫寶鑑』에도 血나 혈적에 사용하는 桃仁煎<sup>19)</sup>이 있으나, 처방의 이름과 효능은 유사하지만 구성은 전혀 다르다. 우잠의 삼출도인전은 氣虛에 痰飲을 치료하는 六君子湯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行氣시키기 위해 정향당목향청피, 食鬱을 해소하기 위해 산사육·지실, 積聚를 풀기 위해 현호색·삼릉·봉출 등을 가미한 처방이다. 이는 『東醫寶鑑』의 도인전이 瀉下시키는 약재로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정기를 기르면 적은 저절로 사라진다[養正積自除].’라는 이론<sup>20)</sup>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환자는 증상이 나아진 이후에 남편과 성관계를 가져 자궁이 생기기 밖으로 빠져 나오는 陰挺을 앓게 된다. 이 음정 역시 간울(肝鬱)로 비가 허하게 되어 내려앉은 것으로 환자의 몸상태를 볼 때 예상 가능한 병발증이다. 이에 우잠은 음문에서 장이 늘어서 나왔다는 사실에서 陰脫임을 직감하고 환자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남편과의 성관계의 문제를 질책할 수 있었다. 우잠은 보중익기탕 가감방, 용담사간탕, 여로고를 사용하여 이를 치료한다. 보중익기탕의 가감법을 포함한 일련의 치법들은 『東醫寶鑑』에서 찾을 수 있다.<sup>21)</sup> 이를 통해 그가 『東醫寶鑑』에 근거한 임상을 펼쳤

意內治, 則精全而滋. 若思想外淫, 房室太甚, 則固有淫洩不守, 輒隨溲尿而下. 然本於筋痿者, 以宗筋弛縱也. 『謙甫』”

17) 『東醫寶鑑』 「雜病 積聚」 瘕瘕接辭證治 “징가가 부인의 자궁에 생기면 아이를 낳지 못하고 포락에 들어가면 월경이 나오지 않는다. 瘕瘕入於婦人子藏則絕產, 入於胞絡則經閉.”

18) 『東醫寶鑑』 「雜病 積聚」 鍼灸法 “징가적괴에는 먼저 덩어리 위에 침을 놓는데, 덩어리가 클 때는 덩어리의 머리에 하나, 꼬리에 하나 침을 놓는다. 덩어리가 침에 반응하면 바로 뜸을 뜬다. 그리고 삼리에 뜸을 뜬다. 『강목』 瘕瘕積塊, 先於塊上鍼之, 甚者又於塊首一鍼, 塊尾一鍼, 立應鍼, 訖灸之. 又灸三里. 『綱目』”

19) 『東醫寶鑑』 「內景 胞」 千金桃仁煎 “혈가나 혈적(血積)으로 월경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도인·대황·박초 각 2냥, 맹충 5돈. 이 약들을 가루내어 좋은 식초 2.5되와 함께 은그릇이나 돌그릇에 넣고 은근한 불로 졸여서 1.5되를 취한다. 여기에 도인·대황·맹충을 넣고 수없이 짓는다. 박초를 넣고 다시 충분히 저은 후 한 참 있다가 꺼내어 오자대로 환을 만든다. 전날 저녁을 굶고 새벽에 따뜻한 술로 5알씩 삼키면 나쁜 것들이 나온다. 나오지 않으면 다시 먹고, 선혈이 보이면 약을 그만 먹는다. 『양방』 千金桃仁煎 治血積, 血積, 經候不通. 桃仁, 大黃, 朴硝各二兩, 蠱蟲五錢. 右爲末, 好醋二升半, 銀石器中, 慢火煎取一升半. 下桃仁, 大黃, 蠱蟲攪千下, 次下朴硝, 更熟攪, 良久出之, 丸如梧子大. 前一日不吃晚飯, 五更初, 溫酒吞下五丸, 取下惡物. 未下再服, 見鮮血即止藥. 『良方』”

20) 『東醫寶鑑』 「雜病 積聚」 養正積自除 “역로가, ‘정기를 기르면 적은 저절로 사라진다’라고 하였으니, 비유하자면 군자가 가득한 곳에서는 비록 한 명의 소인배가 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저절로 나가는 것과 같다. 易老云, 養正積自除. 譬如滿座皆君子, 縱有一小人, 自無容地而出, 令人眞氣實, 胃氣強, 則積自消矣. 更能斷厚味, 節色慾, 戒暴怒, 正思慮, 庶乎萬全而無害. 『綱目』”

21) 『東醫寶鑑』 「外形 前陰」 陰挺陰脫 “음부에서 버섯이나 닭 벼슬 같은 것이 튀어나오고 주변이 붓고 아픈 것은 간울(肝鬱)로 비가 허하게 되어 내려앉은 것이다. 먼저 보중익기탕에 치자·복령·차진

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3. 분노로 생긴 부인의 간울상비<sup>22)</sup>

마지막으로 살펴볼 치험례는 남편의 외도와 무관심으로 발생한 하복부와 생식기 질환이다. 환자는 27세 부인으로 생식기가 가렵고, 아랫배와 함께 빠질 듯이 무지근하였다. 특히 이 환자는 살이 빠져 초췌하고 먹지 못하는 증상을 동반하였다. 우잠의 기록을 정리해 보면 <표 3>과 같다.

이 환자의 증상 역시 앞의 두 치험례와 유사하다. 때문에 우잠은 일차 처방으로 용담사간탕을 선택하여 생식기와 하복부 증상을 호전시켰다. 이 환자의 임상적인 특이점은 ‘살이 빠지고 먹지 못하는’ 증상이다. 이는 우잠의 설명처럼 肝鬱로 인해 脾氣가 손상받은 것이다. 脾가 인체의 肌肉을 주관하고 입맛[口味]과 음식의 소화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東醫寶鑑』에서는 歸脾湯에 시호와 치자를 가미한 加味歸脾湯<sup>23)</sup>이 기재되어 있으나, 우잠은 여기에 청피, 차전자, 복령을 더 추가하여 처방을 꾸몄다. 이 가미법은 치료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젊은 부인의 백음 치험례에서 사용되었던 보중익기탕의 가미법과 의미가 동일하다.

표 3. 분노로 생긴 부인의 간울상비 치험례 요약

인적사항		■ 27세의 아나네
환자의 호소	발병원인	■ 남편의 외도
	주요증상	■ 갑자기 생식기가 가렵다가 혈어서 고름물이 멈추지 않음 ■ 생식기와 아랫배가 빠져나올 듯 무지근하게 내리누름 ■ 살이 빠져 초췌해지고 먹지를 못함
우잠의 평가	맥상	미상
	외증	미상
	병인, 병기	■ 마음에 분노로 인한 화가 생겨 발산되지 못하여, 간기(肝氣)가 맺히고 비(脾)가 허하여 아래로 처짐
	치법	■ 간담의 습열을 제거 ■ 분노로 손상된 심비를 다스림
치방 처방	처방	■ 용담사간탕 (7첩) ■ 귀비탕 加 시호 청피 : 손상된 간목(肝木) 소통 산치자인 : 울화(鬱火)와 간담의 노화(怒火) 해소 차전자 적복령 : 소변으로 하부의 습사(濕邪) 배출
	경과	■ 용담사간탕 복용 후 생식기와 아랫배 증상 호전 ■ 귀비탕 복용 후 초췌한 몸골과 입맛 없는 증세 호전

Ⅲ. 고찰

1. 婦女 질환에 대한 전통의학의 견해

동아시아의 전통의학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전통의학에서는 인간이 저마다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 한의학 하면 떠올리는 ‘體質’에 관한 인식도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특히 남자와 여자, 아이와 노인의 경우, 모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질병을 앓으며 치료 방법 역시 달라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구분은 구조적 차이뿐만 아니라 기능적 차이를 전제한 것으로 전통의학이론 곳곳에서 발견된다. 우잠이 치료한 婦女的 肝鬱 치험례를 이해하기에 앞서 한국 전통의학에서 바라본 婦女 질환의 특징을 요약해 보자.<sup>24)</sup>

2. 남자와 다른 婦女的 ‘몸’

여자는 남자와 달리 經帶胎產이라는 문제를 가지게 된다. 즉, 월경, 대하, 임신, 출산의 문제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질병들이 생겨나고 이것이 이른바 부인과 질환의 대부분이다. 이것들은 모두 남자에게는 없는 자궁[胞]이라는 장기에서 비롯된 문제들이다. 전통사회의 사람들은 ‘왜 여자에게 자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여기에서부터 남자와 차별화된 여성의 몸, 여성의 질환을 설명하고 해결해나가기 시작한다.

우선 전통의학에서는 양자의 차이를 자연계의 일반적인 원리인 陰陽의 속성으로 설명한다. 남자는 陰莖이 있고 수염이 나며, 여자는 자궁이 있고 유방이 발달했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陰陽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자는 陰에 속한다.

자청피를 넣어 간화(肝火)를 내리고 비기(脾氣)를 올린다. 다시 귀비탕에 치자복령·천궁을 넣어 조리하고, 곁에는 여로고를 바른 다. 『입문』 陰中突出, 如菌如雞冠, 四圍腫痛, 乃肝鬱, 脾虛下陷. 先以補中益氣湯, 加梔子, 茯苓, 車前子, 青皮, 清肝火, 升脾氣, 更以歸脾湯, 加梔子, 茯苓, 川芎調理, 外塗藜蘆膏. 『入門』”

22) 張泰慶, 앞의 책. pp.62-63.  
23) 『東醫寶鑑』 「內景 胞」 加味歸脾湯 “간비(肝脾)에 노기가 울체되어 월경이 나오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 귀비탕에 시호·치자인 각 1돈을 더한 것이다. 이 약들을 썰어 물에 달여 먹는다. 『양방』 治肝脾怒鬱, 月經不通. 卽歸脾湯加柴胡, 山梔仁各一錢. 右剉, 水煎服之. 『良方』”  
24)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구교성,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살펴 본 男女, 대한형상의학회 4(1), 2003. pp.470-494. 李仁洙尹暢烈, 「男女의 差異에 根據한 男女形象의 醫學的 運用에 대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 19(1), 2006. pp.47-109.

음이 가득 차면 반드시 밑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젖가슴은 크고 음문[陰戶]은 오므라진다. 남자는 陽에 속한다. 양이 가득 차면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음경은 늘어지고 젖꼭지는 오그라든다.”<sup>25)</sup>라는 『東醫寶鑑』의 설명은 전통사회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전통의학에서는 胞 뿐만 아니라 乳房을 매우 중요한 인체 부위로 보았다. 『東醫寶鑑』에서는 “남자에게는 음경이 중요하고, 부인에게는 젖가슴이 중요하다. 위아래로 위치는 다르지만, 모두 성명(性命)의 근본인 것은 한 가지다.”<sup>26)</sup>라고 할 정도였다. 이것은 여성을 상징하는 陰氣가 시작되는 곳이 안으로 오그라든 胞라면, 인체 밖으로 발현된 곳이 유방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外形에서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乳房이라면, 內景에서는 血과 肝이 된다. 『東醫寶鑑』에서는 “남자는 精이 왕성하면 여자를 생각하고 부인은 血이 왕성하면 아이를 가지려 한다.”<sup>27)</sup>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통찰은 문맥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남녀의 생식활동에서 기인된 것이다. 남녀의 질병을 살필 때, 남자는 성생활을 살피고 여자는 월경과 임신을 살피라는<sup>28)</sup> 『東醫寶鑑』의 격언 역시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남녀의 병은 남녀가 가진 性의 역할에 그대로 반영되기 마련이며, 고유의 性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면 겉으로 가벼운 병처럼 보인다 하여도 그 뿌리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인간생활 자체를 면밀하게 관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로 말미암아 精을 주관하는 腎을 남자의 건강과 질병을 좌우하는 핵심 장기로 보았으며, 血을 갈무리하여 내보내는 肝을 여성의 건강과 질병을 결정하는 중요 장기로 보았다. 腎은 精을 갈무리하여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남자에게는 遺精이나 夢泄 등 정액이 새어나오는 병증을 심각하게 생각하였다. 이에 반해 肝은 血을 갈무리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肝의 속성인 發散이 원활하지 못하여 생기는 鬱滯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로 인해 乳房이나 胞에 생기는 여성 고유의 질환을 肝의 鬱滯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 3. 鬱滯되기 쉬운 婦女의 氣

여성에게 문제가 되는 鬱滯는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수성이 풍부한 여성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東醫寶鑑』에서 “부인의 병이 남자의 병보다 열 배로 치료하기 어려운

것은 남자보다 욕심이 많아 남자보다 병이 배로 잘 걸리고, 질투성냄, 연민, 애증이 깊어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의 뿌리가 깊기 때문이다.”<sup>29)</sup>라고 한 설명은 전통의학에서 바라본 女性的의 鬱滯를 잘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이 여성의 鬱滯는 性慾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못하는 경우에 심화되어 질병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처녀, 과부들에게 주로 나타나며, 유부녀의 경우에도 남편과의 적절한 성생활이 성립하지 못하면 발생할 수 있다. 아래의 3가지 설명은 이를 잘 보여준다. 3번째 설명에서 ‘뜻을 이루지 못함[不得遂志]’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욕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다.

“송나라 저징이 비구니나 과부의 병을 치료할 때 처방을 달리 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혼자 살기 때문에 음만 있고 양은 없으며, 욕망은 싹트나 대부분 이루지 못하여 陰陽이 다투기 때문에 추웠다 더웠다하여 거의 溫瘧과 유사하게 된다. 오래되면 虛勞가 된다. 『史記』 「倉公傳」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다. 제북왕의 시녀인 한녀가 허리와 등이 아프고 한열이 있었다. 모든 의사들이 한열병이라고 했으나, 창공이, ‘남자를 원하나 얻을 수 없어 생긴 병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맥을 진찰하여 肝脈이 寸口에서 弦한 것으로 알 수 있다’고 하였다.”<sup>30)</sup>

“과부나 비구니는 울적하여 병이 생긴다. 그 증상은 바람을 싫어하고 몸이 나른하며, 추웠다 더웠다 하고 얼굴이 붉으며, 가슴이 답답하거나 때로 자한(自汗)이 있고

25) 『東醫寶鑑』 「外形 乳」 男女乳腎爲根本 “女人屬陰，陰極則必自下而上衝，故乳房大而陰戶縮也。男子屬陽，陽極則必自上而下降，故陰莖垂而乳頭縮也。” 『入門』

26) 『東醫寶鑑』 「外形 乳」 男女乳腎爲根本 “男子以腎爲重，婦人以乳爲重。上下不同，而性命之根一也。” 『直指』

27) 『東醫寶鑑』 「雜病 婦人」 寡婦師尼之病異乎妻妾 “蓋男子以精爲主，婦人以血爲主，男子精盛以思室，婦人血盛以懷胎。”

28) 『東醫寶鑑』 「雜病 辨證」 男女病因 “모든 병에 남자는 반드시 성생활을 살피고, 여자는 먼저 월경과 임신을 물어야 한다.” 『입문』 凡病男子必審房勞，女人先問經孕。 『入門』

29) 『東醫寶鑑』 「雜病 婦人」 婦人雜病 “婦人之病，與男子，十倍難療，以其嗜慾多於丈夫，感病倍於男子，加以疾妬，憂患，慈戀，愛憎，深着堅牢，情不自抑，所以爲病根深也。” 『聖惠』

30) 『東醫寶鑑』 「雜病 婦人」 寡婦師尼之病異乎妻妾 “宋褚澄療師尼寡婦，別製方，蓋有謂也。此二種寡居，獨陰無陽，慾心萌而多不遂，是以陰陽交爭，乍寒乍熱，全類溫瘧，久則爲勞。史記倉公傳，載濟北王侍人韓女，病腰背痛，寒熱。衆醫多以爲寒熱，倉公曰，病得之欲男子不可得也。何以知之。診得其脈，肝脈弦出寸口，是以知之。(後略) 『寶鑑』”

간맥이 현장(弦長)하여 촌구에서 나타나는 것이다.”<sup>31)</sup>

“매일 오전에 정신이 혼미하고 밝은 곳을 싫어하며 사 람소리를 싫어하고, 오후에는 정신이 혼미하고 배가 아프 며 놀라거나 두려워한다. 약간 일을 하거나 월경이 있을 때는 그 증상이 더욱 심해지는데, 이런 것은 뜻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sup>32)</sup>

여성의 질병은 치료 방법에 있어서도 남성과 다르다. “남 자는 양이니 기를 얻으면 흠어지기 쉽고, 여자는 음이니 기 를 만나면 대부분 울체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남자는 기병이 적고 여자는 기병이 많다. 그러므로 치료법에서 ‘여 자는 혈을 고르게 하여 기를 소모시켜야 하고, 남자는 기를 고르게 하여 혈을 길러야 한다’고 한 것이다.”<sup>33)</sup>라는 『東醫寶鑑』의 설명은 여자의 질병에 鬱滯가 전제되어 있다는 전 통의학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리하자면, 전통의학에서는 婦女의 몸과 질병을 자연의 이치, 인간 생활의 특징을 근거로 설명해 나갔으며 이를 통 해 乳房이나 胞 등 구조적인 차이 이외에 血의 문제, 鬱滯 의 문제 등 남자와는 다른 병리 현상들을 개념화하였다. 이 상의 내용들은 우잠의 치험례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잠 장태경이 기록해 놓은 부인과 질환 가운데 肝鬱로 인해 발생하는 하복부 및 생식기 질환에 대 한 치험례들을 모아 분석하고 그 의학적 의미를 분석해 보 았다. 우잠 장태경(1809-1887)은 특히 부인과 질환에 노 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잠의 치험례가 실려 있는 『우잠 잡저』에는 「崩漏帶下」, 「婦人中胎」, 「婦人下産」 등 부인과 질환에 대한 치법들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 다. 분석 결과, 우잠은 의학이론에 매우 밝았으며 특히 『東醫寶鑑』을 근거로 질병을 파악하고 처방을 구성하고 있었 다. 사실 『東醫寶鑑』은 분량이 방대하여 내용이 번잡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때문에 이를 깊이 이해하거나 모두 숙지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의 진료 방식을 보면 마치 『東醫寶鑑』 전체를 암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정도 로 정확하다. 그동안 『제증신편』(1799)이나 『방약합편』

(1885)이 출현을 표면적으로 『東醫寶鑑』의 이런 한계를 극 복하기 위한 요약작업 정도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東醫寶鑑』에 대한 우잠의 이해도를 보면, 이들 서적의 출현은 『東醫寶鑑』이 담고 있는 의학지식이 조선 사회에서 충분한 이 해되고 소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34)</sup>

분량적으로 적지만 침구법에 대한 내용 역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自經補瀉를 이용하여 五臟을 치료하는 방 식은 조선 침구학의 학풍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며, 『우 잠잡저』에서 운기침법을 강조했던 그가 운기침법에 사용되 는 五俞穴과 八脈交會穴을 활용하는 방식은 특정혈의 조합 으로 성립된 사암침법이나 『장진요편』 등 조선 고유의 침 법들이 운기침법을 바탕으로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성 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질환들은 모두 성욕이나 성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본다면 첫 번째 치험례는 일종의 상사병이라고 할 수 있고, 세 번째 치험례는 가정불 화로 야기된 부인의 화병이라고 볼 수 있다. 우잠이 기록해 놓은 생생한 진료 모습을 통해 당시 성에 대한 인식과 사 회적인 분위기를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 삶에 대 한 보편성을 통찰할 수 있어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 지 않다.

#### 참고문헌

1. 張泰慶 著. 안상우, 황재운 譯. 『국역 우잠잡저』. 한국한 의학연구원. 2010.
2. 許浚 著. 윤석희 외 역. 『對譯 東醫寶鑑』. 경남 : 동의보 감출판사. 2006.

- 31) 『東醫寶鑑』 「雜病 婦人」 寡婦師尼之病異乎妻妾 寡婦師尼, 鬱抑成 病, 其證惡風, 體倦, 乍寒乍熱, 面赤, 心煩, 或時自汗, 肝脈弦長而 出寸口.”
- 32) 『東醫寶鑑』 「雜病 婦人」 寡婦師尼之病異乎妻妾 “每日上午, 神思昏 憤, 怕見明處, 惡聞人聲, 至午後, 方可頭昏, 腹痛, 驚惕, 稍涉勞動 與月經來時, 其證尤劇, 此不得遂志之故也. 宜清神養榮, 以四物湯, 加人參, 茯神, 陳皮, 柴胡, 羌活, 香附子, 甘草煎服.”
- 33) 『東醫寶鑑』 「內景 氣」 用藥法 “正傳曰, 男子屬陽, 得氣易散, 女人 屬陰, 遇氣多鬱. 是以男子之氣病常少, 女人之氣病常多. 故治法曰, 女人宜調其血, 以耗其氣, 男子宜調其氣, 以養其血.”
- 34) 『방약합편』의 저자인 황도연(1807-1884)과 우잠은 동년배 사이였 다. 둘의 교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활 동했던 19세기에 『東醫寶鑑』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깊은 수준이 었다는 점이다.

3. 구교성. 「『東醫寶鑑』을 중심으로 살펴 본 男女」. 대한형상의학회. 2003 ; 4(1) : 470-94.
4. 박상영, 권오민, 이정화, 오준호. 「『愚岑雜著』所在 狂證二案에 關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11 ; 24(6) : 101-10.
5. 박상영, 이정화, 권오민, 한창현, 안상우. 「愚岑 張泰慶生涯 研究」. 한국 의사학회지. 2011 ; 24(1) : 57-62.
6. 오준호. 「19세기 조선 침구서 장진요편의 침법 연구」. 경락경혈학회지. 2010 ; 27(1) : 159-68.
7. 李仁洙, 尹暢烈. 「男女의 差異에 根據한 男女形象의 醫學的 運用에 對한 研究」. 대한한의학원전학회. 2006 ; 19(1) : 47-109.
8. 홍세영, 안상우. 「愚岑雜著 에 關한 一考」. 호남문화연구. 2009 ; 46 : 296-304.